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는 마음들이 끝없이 굽이쳐가고있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었다.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세워주시고 만복의 씨앗을 뿌려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백두산대국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세계적수준의 메기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삼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세계적인 메기공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삼천메기공장의 곳곳마다에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스며여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혁명적의리이며 본분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어 꾸려주신 메기공장들이 은을 내어 군인들과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하자면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이 사업을 오분열도식이 아니라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공급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과 함께 양어를 대대적으로 하는것이라

고 하시면서 그래서 최근 당에서는 양어에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양어장들의 현대화를 적극 밀고나가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삼천메기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일떠선 공장,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애국유산중의 하나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메기를 공급할수 있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만시름을 잊으시고 환하게 웃시던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삼천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한시도 잊지 말고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삼천메기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자세히 알아보고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메기공장으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삼천메기공장이 자리잡고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소문난 온천지대인것으로 하여 온수성물고기인 메기를 기르는데서 리상적인 곳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을 세계적인 메기생산기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삼천메기공장을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세계적수준의 메기공장으로 전변시킬수 있게 자신께서 공장 현대화에 필요한 강력한 설계 및 시공력량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파견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일어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발동하는데 당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그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킨다면 삼천메기공장의 방대한 현대화공사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다음해 10월 10일까지 얼마든지 끝낼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는 우리 조국에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신비로운 속도로 강산이 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화를 북으로, 그 북을 더 큰 북으로 만드는 우리 당의 투쟁본때, 투쟁기풍에 의하여 삼천메기공장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는 공장, 실지 덕을 보는 멋쟁이공장으로 전변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삼천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에서 과업을 준대로 해당 부문 과학자, 기술자, 설계가, 건설자들과 힘을 합쳐 공장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서 현대화하고 가까운 년간에 메기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높은 생산성으로 빛내어나가기 바란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었다.

본사기자

거창한 변혁을 안아오는 세련된 령도

기쁨과 희망, 격동과 환희로 가득찬 한해가 저문다.

송년의 언덕에서 지나온 해를 돌아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못 뿌듯하기만 하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흘러온 2015년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울 실로 커다란 사변적성과들이 이룩된 자랑할만 한 해였다.

공화국은 올해에도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자위의 역제력을 강화하면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끊임없는 침략전쟁책동을 결심마다 짓부셔버리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공화국의 존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이해에 공화국의 도처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열풍속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 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건설대상인 백두산영웅 청년발전소가 청춘대기념비로 백두전구에 거연히 솟아올랐고 청천강을 전기강, 보배강, 락원의 강으로 전면시킴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 200여리구간에 10개의 계단식발전소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 1단계공사가 성과적으로 마무리되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몇쟁이건축물로 우뚝 솟아났는가 하면 속섬에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의 녹색건축물인 과학기술전당이, 대동강기슭에 하나의 도시와 맞

먹는 미래과학자거리가 준공되어 공화국의 과학기술중시, 인재중시정책을 현실로 증명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웅장하게 새로 개건되고 원산육아원, 애육원이 원아들의 살기 좋은 보금자리로 훌륭히 일떠서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 더 높이 울리게 되었으며 평양의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문명개화된 멧쟁이농장도시로 전변되었다. 전대미문의 큰물피해를 입은 최북단 라선땅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전화위복의 기적도 창조되었다.

평양버섯공장, 평양예기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원산구두공장, 사리원방직공장, 금강체육인종합식료공장 등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본보기, 표준공장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현대화되어 증산의 동음 높이 올리고있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 농장이 생겨 처음보는 호미한 과일대풍을 이룩한것이며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으로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가 넘치고 《이채어경》이라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이 펼쳐진것도 올해의 자랑거리이다.

이뿐이 아니다. 모란봉악단의 진취적이며 생기발랄한 공연, 공훈국가합창단의 우렁찬 노래포성,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창공높이 휘날린 공화국기는 강성국가건설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에게 끝없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올해의 자랑찬 성과들은 그 누가 선사한것도, 저절로 이루어진것도 아니다.

이 사변적인 성과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공화국을 천리마의 속도,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도록 이끌어주는 경애하는 김정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애민헌신의 로고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올해에 군대와 인민이 나아갈 밝은 앞길을 제시해주시고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해줄데 대한 휘황한 구상을 제시해주신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이해에도 온 한해동안 현지도의 드바쁜 나날을 보내시었다.

지난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의 불타는 총정의 마음을 볼수 있었다고, 자신께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대자연과의 싸움을 벌리고싶다고 하시면서 건설을 하루빨리 끝낼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리고 완공을 앞둔 발전소를 또다시 찾으시여 지난 4월 자신께서 발전소건설장을 다녀간 때로부터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부강조국건설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 나날 머나먼 하늘길, 배길을 달려 조국의 최북단까지 찾으시고 라선시 피해복구전투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셔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소중한 간직된 당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이 당의 결심이라든 산악도 떠움기고 바다도 매우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라선시 피해복구전투를 당장건 일흔둘점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끝냄으로써 10월의 하늘가에 사회주의 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령도가 있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화위복의 기적도 창조될수 있었다.

참으로 그이의 령도는 자체의 힘으로 세계적인 비약과 전변을 안아오며 문명강국을 앞당겨 건설하게 하는 탁월한 령도이고 인민들에게 모든 행복을 안겨주시는 인민사랑의 령도이다.

하기에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그이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따를 때 이 땅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 문명국이 일떠서고야말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다.

자랑찬 기적과 위훈으로 수놓아진 한해를 보내며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밝아오는 2016년을 강성국가건설에서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신심과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우에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백두의 녀장군이신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조국통일은 김정숙녀사의 애국의 뜻이고 녀성이었다.

지난 세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벌리신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의 승리로 조국은 해방되었으나 8.15후 남녘땅을 강점한 외세의 민족분열책동으로 조선민족에게는 영구분열의 위험이 조성되게 되었다. 항일대전에 참가하시여 조국해방위업 실현에 공헌하신 김정숙녀사께서는 새 조국건설과 함께 나라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항일의 나날 녀사께서 바라신것은 돌로 갈라진 조국이 아니라 온 강토의 해방이었기에 건국의 나날 녀사의 모든 사색과 정력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었다. 우리가 산에서 피흘려 싸운것은 온 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였는데 남조선인민들을 외세의 강점 밑에 그냥 두고 어떻게 발전잠을 갈수 있겠는가 하시며 늘 분렬된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신 녀사이시었다.

1947년 9월 어느날이었다. 강원도를 찾으신 그날 경치아름다운 삼일포를 돌아보시는 녀사의 생각은 깊으시었다. 병풍처럼 둘러선 산발들과 기암절벽들, 호수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섬이며 한눈에 안겨오는 동해천리... 녀사의 심중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강렬히 불타오르시었다.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마냥 펼쳐진 호수일대를 부감하시며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조국

을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녀사께서는 쌍안경을 드시고 남녘땅을 바라보시며 하루빨리 남조선인민들에게도 금강산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하나의 아름다운 산천경계를 보시면서도 조국을 사랑하고 통일을 녀원하고 민족을 생각하신 녀사이시었다. 것처럼 애국충정이 뜨겁고 통일소망이 간절하시였기에 녀사께서는 공화국이 창건되던 력사적인 그 날에도 항일의 전우들과 《공화국선포의 노래》를 부르시는 자

통일애국의 길에 빛나는 고귀한 생애

리에서 남녘인민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하시며 겨례가 함께 모여살 부강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열망하시었다.

조국이 통일되면 혈로를 헤치는 길에서 쌓이고쌓인 피로가 풀릴것 같다고 하시며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헌신하신 녀사께서는 우리 인민은 민족문제를 얼마든지 제힘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조선의 통일은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조선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실현에 각계층 인민들을 적극 불러일으키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발기에 따라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소집될 당시에도 녀사께서는 정견과 신앙, 과거경력을 초월하여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련석회의의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

었다. 련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 녀성대표들을 만나시였을 때에는 단결만이 승리이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도 일치단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 모두가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적극 나서도록 고무하신 녀사이시었다.

열화같은 조국애와 민족애, 한없이 넓은 아량과 포용력, 인자하신 성품으로 북과 남의 각계층 사람들을 통일실현으로 불러일으키신 김정숙녀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빛나는 귀감이시었다.

당시 평양을 다녀간 몽양 려운형은 이렇게 토로하시었다.

나는 평생에 조선은 말할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한다 하는 녀걸들과 녀류명사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김정숙녀사 같은신분은 어디서도 본적이 없다. 유명한 사격수로 이름떨치신 녀장군이신데다 정치적식견과 안목이 뛰어난 정치활동가이시지만 것처럼 현숙하고 상냥하며 소박하고 소탈하신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 김정숙녀사같은신분은 동서고금에 두분도 없을 것이다. ...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 후손만대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김정숙녀사는 세월과 더불어 겨례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녀사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온 겨례의 통일애국의 길에서 길이 빛나고있다.

허강철

최신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 거점으로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께서 지난 2월 과학기술전당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대동강의 쑥섬을 과학의 섬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 현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공사진척실태, 자재보장대책문제 등 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과학기술전당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21세기 주체건축예술의 척도를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대상이라고 하신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전당건설에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도록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신발도안을 선행시키고 생산공정의 정보화, 자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편리하면서도 맴시하고 가벼우면서도 질긴 신발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방도적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신 그이께서는 질이 낮은 제품은 아무리 많이 생산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면서 생산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질을 높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월 어느날 류린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사출, 재봉, 제화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아동신발, 계절에 따르는 여러가지 신발과 축구화, 룡구화를 비롯한 운동신들을 보시었다. 수요자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게 다중화, 다색화, 다양화된 신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 자기 단위를 상징하는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었다.

신발도안을 선행시키고 생산공정의 정보화, 자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문제 등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물고기생산량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적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사업소를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면시켜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이 군인들과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걸음으로 되게 하자고 호소하시었다.

보람 있는 걸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1월 어느날 한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 절임랑크들과 랑동저장실들에 가득 쌓여있는 물고기들을 보시고 며칠사이에 수천t의 물고기를 잡은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치하하신 그이께서는 물고기잡이실태와 경영관리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다.

그러시고는 계절에 구애되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데서 어장탐색과 해상지휘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문제 등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물고기생산량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적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사업소를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면시켜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이 군인들과 인민을 위한 보람있는 걸음으로 되게 하자고 호소하시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나날에



원수님따라 하늘땅끝까지

공화국에서 올해는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보다 굳건해지고 일심단결의 위력이 만천하에 퍼져나간 뜻깊은 해였다. 이해에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굳게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을 어떻게 하나 파괴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의 오바마는 지난 1월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투입》이니 뭐니 하며 《북조선붕괴》를 로골적으로 떠들었다. 이에 따라 공화국을 와해시키기 위한 삤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이 더욱 강화되고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온 한

해동안 집요하게 벌여졌다. 이것은 공화국주민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령도자에게로 달리는 그들의 마음을 다른데로 돌려보려는, 하여 일심단결에 금이 가게 하려는 비렬한 술책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2015년 이 한 해에도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치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군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열화같은 숭배심은 2015년을 진동하였다. 《김정은원수님 만세!》 군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이 웨침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 평양시군중시위장에

서도 하늘땅을 진감하며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원수님 가시는 곳마다에서 울리었다. 성스러운 당의 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자리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도 시종 고마움과 믿음, 사랑을 담아 인민에 대해 말씀하신 원수님, 일년 열두달 인민의 행복을 꾀워워주기 위해,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안겨주시려고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애민현신의 지도자를 우리러 공화국의 남녀로소는 뜨거운 격정을 삼키었고 그이의 탁월한 애국의 령도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받들 충정의 맹세들을 다지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사람들은 잊

지 못하고있다. 수십년래의 큰물피해를 당하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의 수해지역인민들의 정상을 생각하시며 잠 못 이루시고 하루빨리 피해복구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전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조선로동당의 중요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취급하도록 하시고 머나먼 피해복구현장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하기에 그이께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한 라선땅을 돌아보시고 돌아가실 때 건설에 동원되었던 수많은 군인들과 현지주민들은 그이

가시는 자동차를 따라서며 두손 높이 들어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달리는 차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흥먼지를 일구며 수천수만의 병사들과 인민들이 눈물속에 만세를 웨치던 그 감동적인 화폭은 지구상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자기 령도자를 친아버지로 모시고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공화국국민의 아름다운 화폭이었다. 세계적으로 분쟁과 소요가 그칠새 없었던 2015년에도 조선에서는 이처럼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만을 믿고따르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한길로 내달려왔다. 본사기자 김철진

모든 면에서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국제사회계가 한결같이 격찬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표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모든 면에서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표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표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표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표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표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표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표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표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표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우러러 칭송하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김정일대원수각하와 꼭 같은 모든 면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성공하시는 정치의 거장이시라는 것이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각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모든 품모가 다 특출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한없이 고결한 인격과 덕망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조선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표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시었다.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천만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라고, 김정은각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라고 격찬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위대한 인민의 모습

애국미에 충정의 마음을 담아

김제원, 그는 평범한 농민이었다. 하나 공화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방후 김일성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 첫 애국미를 바친 그에 대하여 《애국농민》, 《농민영웅》이라는 소중한 추억을 안고있다. 나라없던 지난날 지지리도 못살아 쓰라린 실음만이 차있던 김제원농민의 가슴에 령도자를 받들줄 아는 열화같은 충정이 그토록 소용돌이친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땅을 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은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은인이시였고 생의 전부이시였다. 하기에 그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웠으며 수령님에 대한 일편단심을 지니고 피라게 일하였다. 해방전 땅에 엮매여 소작살이를 하며 짐승보다 못한 천대와 멸시를 받아온 그였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기름진 땅 3 300평을 부여 받은 날 그는 온밤 땅을 부여안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길을 걸어도, 잠자리에 들어도 항상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심장을 불태운 김제원농민,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하자는 수령님의 조국개천연설의 구절구절을 늘 가슴에 안고 산 그에게 있어서 나라가 흥하는것이 상 더 바랄것이 없었다. 이런 그였기에 1년내내 남보다 열성적으로 일하여 첫째 농사에서 많은 소출을 낼수 있었고 자기가 가꾼

날알중에서 알알이 고른 30가마니의 쌀을 애국미로 나라에 바칠수 있었던것이다. 김제원농민의 미거는 건국열의로 불타는 새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의 모범적소행이었다. 그의 애국적소행은 온 나라 농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었다. 황해도 재령군의 농민들은 1946년 12월 10일 김제원농민의 모범을 본받아 애국미헌납운동과 량곡수매사업을 힘차게 전개할것을 결정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결의를 담은 편지를 드리였으며 전국의 농민들에게 애국미헌납운동에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들은 이날 하루동안에 830가마니의 애국미를 국가에 헌납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김제원농민과 재령군농민들에게 감사편지를 써보내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해방후 수령님께서 김제원농민이 부여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 애국미 30가마니를 싣고 찾아온데 대하여 애국적소행으로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그를 댁에서 만나 고무해주시고 김제원농민과 재령군농민들에게 친히 감사편지까지 써보내시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제원농민을 비롯한 애국적농민들이 토지를 부여 받은 기쁨을 안고 나라에 헌납한 지성 어린 애국미를 어디에 쓸것인가 하는것을 심중히 토의한 끝에 김일성총합대학교사건설에 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생의 자욱자욱을 아름답게

새긴 김제원농민은 가벌처절한 전화의 나날에도 식량증산투쟁과 전선원호사업에 앞장섰으며 적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을 지닌 김제원농민의 뒤를 이어 많은 애국농민들이 자라났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련을 겪던 나날 90년대의 김제원이 될것을 맹세하며 12t의 애국미를 나라에 바치고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린 은과군 양동협동농장 제7작업반 농장원들의 소행. 이들의 소행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90년대의 김제원이 되자는 호소가 얼마나 좋은가, 양동협동농장 제7작업반 농장원들이 90년대의 김제원이 되자고 호소한것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뜨거운 애국충정의 발현이라고 하시며 높이 평가하시였다. 황주군 룡천협동농장 농장원들은 허리띠를 조여도 애국미를 바치는 것이 농민의 도리라고 하면서 강냉이농사에서 전국적으로 1등의 영예를 지니겠다는 결의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충정의 편지를 올리였다. 편지를 받아보신 장군님께서는 당에 대한 인민들의 충정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고, 우리 인민은 정말 좋은 인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김제원농민이 애국미를 바친 때로부터 7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각지의 농업근로자들은 그의 애국적소행을 거울로 삼고 쌀로써 공화국을 굳건히 받들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새긴 김제원농민은 가벌처절한 전화의 나날에도 식량증산투쟁과 전선원호사업에 앞장섰으며 적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을 지닌 김제원농민의 뒤를 이어 많은 애국농민들이 자라났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련을 겪던 나날 90년대의 김제원이 될것을 맹세하며 12t의 애국미를 나라에 바치고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린 은과군 양동협동농장 제7작업반 농장원들의 소행. 이들의 소행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90년대의 김제원이 되자는 호소가 얼마나 좋은가, 양동협동농장 제7작업반 농장원들이 90년대의 김제원이 되자고 호소한것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뜨거운 애국충정의 발현이라고 하시며 높이 평가하시였다. 황주군 룡천협동농장 농장원들은 허리띠를 조여도 애국미를 바치는 것이 농민의 도리라고 하면서 강냉이농사에서 전국적으로 1등의 영예를 지니겠다는 결의를 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충정의 편지를 올리였다. 편지를 받아보신 장군님께서는 당에 대한 인민들의 충정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고, 우리 인민은 정말 좋은 인민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김제원농민이 애국미를 바친 때로부터 7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각지의 농업근로자들은 그의 애국적소행을 거울로 삼고 쌀로써 공화국을 굳건히 받들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금강산 관광은 관계 개선의 지의 시금석

지금 남조선당국은 제 1차 북남당국회담이 결렬된것을 놓고 북이 《금강산관광재개문제를 놓고 뽐니를 부린 결과》라느니, 《금강산관광재개문제를 주장하여 회담에 난관을 조성하였다.》느니 하면서 공화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렬한 여론조작놀음에 매달리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 것은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재개문제를 놓고 무슨 《북의 핵과 미

싸일위협을 증대시키는 돈줄》,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세우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금강산관광재개가 어떤 문제인가 하는 초보적인 상식조차 모르는 극도의 무지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누구의 《돈줄》인가

남조선당국은 마치도 금강산관광재개문제를 두고 북이 《돈》에 《목》이 메어 요구하는것처럼 말하고있다. 즉 그들의 말대로라면 금강산관광은 북의 《돈줄》이고 남측의 북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라는것이다. 아전인수격의 해괴한 주장이 아닐수 없다. 금강산관광은 명백히 세계적명산인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남측기업의 요청을 공화국이 들어주어 시작된것이다. 《퍼주기》에 대해 말한다면 사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엄청난 리득을 본것은 공화국이 아니라 남측이다. 공화국은 쌍방의 군사적대결이 가장 첨예한 지역에 금강산관광을 위해

가시철조망을 들어내고 룩로를 개설해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지금까지 룩로와 해상으로 금강산을 다녀간 남측사람들은 근 200만명에 달한다. 민족의 명산은 누구나 보고싶어하며 아직 공화국에도 금강산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남조선인민들에게 금강산을 아무 때건 돌아볼수 있게 넓은 길을 열어주고 온갖 특혜 조치들도 취하였었다. 그렇게 해주면서도 공화국이 금강산관광으로 얻은 수입은 남측의 리득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다.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중소기업들이 입은 피해액규모만 놓고 보아도 금강산관광이 과연 누구에게 《돈줄》로 되고 《명줄》로 되는가를 잘 알수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금강산 기업인협의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주판회사인 《현대아산》은 1 000명이 넘는 직원이 몇십명 규모로 줄어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있으며 남강원도 고성군은 관광중단 7년간 수천억원의 경제적손실과 매년 123만명의 관광객감소, 40여개의 중소기업들의 파산이라는 운명에 처하였다,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들, 고성주민들도

수전노적인 사고

남조선당국과 보수언론은 북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재개문제를 자꾸 돈과 련결시키는데 이것은 모든것을 돈으로밖에 계산할줄 모르는 정치적무지와 속물적근성의 산물이라 해야 할것이다. 금강산관광은 관광과 수입을 초월하는 특수한 정치효과를 발휘하고있다. 그것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 평화변영에 적지 않게 이바지한다는것이다. 금강산관광은 단순한 산천경이 아니라 통일의 《무지개다리》이고 혈육의 정을 두터이하는 민족의 《오작교》라는것

두가 웃고 지낼수 있도록 금강산관광을 재개해달라고 《정부》에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이 파산몰락하고 그에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실업자로 되었으며 금강산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남조선강원도 고성주민들이 살길이 막혀 아우성치는 현실은 금강산관광이 과연 누구에게 《돈줄》로 되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은 지난 6.15시대가 확증해주었다. 북남협력사업의 《옥동자》로 불리운 금강산관광사업은 겨레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근 10년간 금강산을 다녀간 남조선관광객수는 무려 3 550차에 192만 6 665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는 남조선 《국회》의원과 여야정치인, 청와대와 행정부 장, 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리들도 포함되어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물고를 뜨게 만들었다.》,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간인들의 대규모 방북시대가 열렸다.》며 그 역사적의의를 되새기고있다. 남조선의 한 정계인사는 《금강산은 돈이 오가는 곳이 아니다. 금강산에 오가는 사람들은 바로 <한> 반도 평화를 위한 시위대렬이다. <한> 반도평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는 평화의 절규가 바로 금강산관광인것이다.》라고 금강산관광의 거대한 의미에 대해 강조하였다. 보는것처럼 금강산관광

의 가치는 그 관광자원의 견지에서 보나 남녘동포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에게 준 기쁨과 통일의 희망으로 보나 돈으로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얼마전 모처럼 열린 북남당국회담에서도 온 겨레가 절박하게 해결을 바라고있고 쌍방이 쉽게 합의할수 있으며 특히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남측당국의 립장과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되는 금강산관광재개문제를 제기하였던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에서도 모든것을 돈으로 계산하려 드는 속물적근성과 비뚤어진 견해를 버려야 한다.

관광재개를 달가와 안하는 리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려면 북남관계개선의 첫 돌파구가 이미 진행되어오던 금강산관광을 되살리는것이라는것은 충분히 리해하고있다. 수년간 굳게 닫혔던 북남관계의 빗장을 푸는 일이 그 이전에 오래동안 겨레의 관심 속에 활발히 진행되던 금강산관광재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너무도 합당한 론리의 흐름인것이다. 이미 진행되던 좋은 일도

되살리지 못하면서 과악이 없는 새로운 일을 자주 벌려만놓으려 해서야 제대로 될리 만무하고 동족의 신의도 살수 없다. 민족의 우선관심사는 금강산관광재개이다. 그것은 남측이 관계개선의 의지만 있으면 능히 가능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에 다같이 리롭고 통일에 유익한 금강산관광재개문제를 남조선당국은

이번 당국회담에 들고나온 제안에 애당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것이다. 그리고 관광재개문제를 합의문에 넣는것을 끝까지 반대하여 회담을 결렬으로 몰아갔다. 무슨 리유에서인가.

6.15시대처럼 북남관계가 활성화되고 화해와 통일기운이 고조되는것을 바라지 않기에문일것이다.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며 체체대결, 이른바 《흡수통일》에 기대를 걸고 집요하게 꾀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이 보면 남조선인민들속에 민족의 동질성과 련복의식을 높여주고 화해와 통일기운을 북돋아주는 금강산관광이 달가울리가 없다. 결국 북남관계를 적당히 하는척 흉내만 피우면서 대결시대를 지속시키고 저들의 케케묵은 체제압살목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데 남측당국의 진의도가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아무리 《진성성》이니, 《대화》니 요술을 피워도 세상의 밝은 눈은 속일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현실을 외곡하고 민심을 기만우롱하지 말아야 하며 온 겨레앞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겠는가 안하겠는가 하는 립장을 똑똑히 밝혀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시론 북남관계와 자주적인 태도

지난 11일과 12일에 열렸던 북남당국회담은 겨레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속절없이 막을 내리었다. 실패에는 언제나 교훈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번 회담을 지켜보면서 겨레가 다시금 절절히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다. 그것은 남조선이 대미 의존과 굴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북남관계의 자주적발전은 진통과 한계에 부딪칠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이번 당국회담에서 남측은 회담의 기본의제였던 금강산관광문제를 놓고 《3대전제조건》, 《사업권회복》, 《내부사정》 등 별의별 구실을 다 대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였다. 그러다가 정 할 소리가 없는지 나중에는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수 없다.》는 말로 변명 비슷하게 굴뚝하였다. 여기에서 다시금 느끼게 되는것은 남조선이 미국의 승인없이 한발자국도 움직일수 없다는 사실이다. 북남관계에서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로 작용하고있다. 사실 남측이 금강산관광재개에 그토록 빗장을 계속 두르지 못해하는것은 미국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있다. 원래 북남사이에 금강산관광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미국은 이를 달가와하지 않고 음으로양으로 갖은 방해책동만 일삼

았다. 금강산관광이 처음 시작된 1998년 12월초 당시에 미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이었던 페리는 금강산관광수입이 《북의 군사비로 전용될수 있다.》고 했는가 하면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별의별 험담을 다 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을 가로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다. 금강산관광으로 생기는 자금이 그 무슨 《북의 핵개발》로 쓰인다는 터무니없는 《리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꾀변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때로부터 근 10년이 되어오고있지만 공화국은 미국의 침략위협에 맞서 자위의 핵역세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하여왔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고 미국의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다. 금강산관광이 《핵개발을 위한 돈줄》이라면 지금까지의 이같은 억제력강화는 생각도 못할것이다. 《돈줄이 끊어졌으니.》 공화국이 몇푼의 돈에 목이 메어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수호를 위한 억제력마련을 그 무슨 관광에 기댄다고 생각하는것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살의 궁극적목적거기어고 실현해보려는 궁여지책의 꾀변이라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붕괴압살》정책이라는것은 이해의 정초에 오바마가 《부조선붕괴》를 로골적으로 떠든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추종하여 관광객사건이 우연하게 발생한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오래동안 진행되어오던 민족의 통일사업인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시키는 반통일대결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 이때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관광재개에 난색을 표시하는 중한 모습을 연출해왔다. 이번 회담에서 관광재개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자 남조선당국자들의 입에서 그 무슨 《제재결의 위반》이니 뭐니 하는 낱아빠진 타령이 또다시 울려나온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도대체 민족의 화해와 공존공영과 평화변영을 위한 사업에 외세의 승인은 왜 필요한것이고 《제재결의위반》이니 하는 틀어놓는가 하는것이다. 북남관계는 철두철미 민족내부의 관계이며 화해와 협력, 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을 위해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주동이 되어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결국 민족내부문제에 외세를 집요하게 끌어들이는 남조선당국의 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지금처럼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자그마한 합의도 주저한다면 북남관계개선은 기필코 좌절과 진통을 면할수 없으며 민족의 거창한 통일문제는 언젠가 도 바로 해결해나갈수가 없다. 남조선당국은 회담의 결렬을 두고 그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모지름을 쓸것이 아니라 외세의 간섭에 얽매어 북남관계문제도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심각히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추종하여 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모처럼 조성될번 한 관계개선의 기회를 날려버린 남조선당국이 수년만에 진행된 이번 북남당국회담에서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상전의 입김에 놀아난것은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 대미굴종과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북남관계를 건설해나갈수가 없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종미로 북남관계의 운명을 망치겠느냐, 자주로 관계개선의 새 역사를 쓰겠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바로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당국회담이 왜 결렬되었는가

북남고위급금접촉의 합의를 행으로 수년만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당국회담이 결렬없이 끝난것과 관련하여 겨레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온 겨레가 지켜보는 당국회담, 수년만에 열린 당국회담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금강산관광재개문제는 단순히 공화국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한 일이고 민족의 귀중한 화해와 협력의 경험을 다시 되살려놓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단지 관광재개로만 끝나지는것이 아니라 화해와 통일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공화국의 정당한 제안을 끝끝내 묵살하여 회담을 결렬으로 몰아갔다. 남측당국에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진정할 마음과 자그마한 의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처신은 안했을것이다. 금강산관광재개문제는 현시기 북남관계개선과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진의를 과악하는 척도로 되고있다. 도대체 십수년간 진행되어온, 그래서 화해와 협력의 길을 터놓은 금강산관광재개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북남

관계의 쑥쑥 담긴 문은 어떻게 열겠다는것이며 여기에 어디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의지가 꼬물만큼도 깃들어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지금 남조선당국은 동족이 하고 하는 일은 덮어놓고 반대하고 있다. 공화국이 지금껏 하여온 모든 일은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안아오려는것이였다. 그런데도 남측은 동족에 대해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관계개선에서 원칙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외면하고 시시껄렁한 일만 끝까지 끌어안고서 사실상의 현상유지에 매달리고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추종하여 체체대결과 《흡수통일》을 계속 추구하다가 북남관계를 충돌과 파국에 몰아간 리명박 《정권》 5년의 수치스러운 전철을 되밧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모처럼 열린 당국대화를 결렬으로 몰아간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김성국

민주와 인권을 짓밟으며

파쇼독재가 없는 민주 계, 로동계, 학계, 종교 계의 수백개 단체들과 수십만명의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들은 《세월》호참사진상을 규명하고 생존의 권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보수집권세력은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대며 196개 중대의 1만여명의 폭압경찰을 내몰아 평화적시위군중을 향해 독성이 강한 최루액과 물대포를 마구 쏘아댔는가 하면 시위참가자들을 방패로 찍고 머리를 땅바닥에 짓조아놓는 등 무지막지한 폭행을 가하다 못해 수십명을 강제연행하는 파쇼폭거를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호흡곤란과 구토,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고 피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빚어졌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11월에도 남조선당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로동악법제정을 반대하여 벌린 각계층 인민들의 시위를 경찰병력을 내몰아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정없이 쏘아대며 진압에 광분하였으며 이로 하여 일흔에 가까운 한 농

민이 너라박을 입고 중태에 빠지고 수많은 시위자들이 팔절당하고 피를 흘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파쇼적망동에 대해 사죄할 대신 도리어 시위 참가자들을 《폭도》로, 《테로분자》로 매도하고 민중총궐기투쟁을 《폭력시위》로 몰아대면서 집회참가자들과 민주로총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검거소동을 일으켰다.

보수집권세력의 파쇼적 망동, 인권말살책동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을 《친북좌파세력》으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는데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남조선보수당국은 한 주민이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전쟁위험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을 단죄 규탄하여 서울한복판에서 미국대사를 징벌한 사건을 놓고 무작정 《중북좌파세력에 의한 테로》로 결고들면서 《보안법》 위반혐의를 들먹이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라는 명목으로 성원들을 《리적단체》결성과 《북의 사상과 체제에 동조

한다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붙여 마구 체포구속하였다.

공화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것을 《중북》으로 몰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신을 체포구속하고 중형을 들먹이었던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버릇처럼 외우는 남조선집권세력이고 《부산청년한 사회》성원들을 비롯하여 무고한 인사들을 무더기 기소하여 악형을 가한것도 남조선의 파쇼당국이다.

사회전반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처참한 무덤으로 화하고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남조선의 한 작가는 《리명박때에는 가시나무가 둘러쳐져있어 가시에 찔리는 느낌을 가졌는데 박근혜(정권)에 들어서서는 철조망에 2중3중으로 감혀있는것 같다.》고 울분을 터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고있으니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홀려온 2015년은 민주와 인권의 동토대가 과연 어느곳인가를 실물로서 확인하고있다.

이해가 다 저무는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그칠줄 모르고있다.

얼마전 군부호전세력들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부의 핵, 미사일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과 도발역제》이니 《예측불가능》이니 뉘니 하는 반공화국대결말발들을 늘어놓으며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나아가 《2016년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예상》된다느니 뉘니 하며 매년에도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더욱 확대강화할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려는 대결광신자들의 흥계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은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해결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루어나가자는 겨레의 지

더해가는 북침전쟁광기

향과 의지에 정면도전하여 온 한해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연습에만 광분해왔다.

《새해를 총성과 함성》으로 출발한다고 떠들면서 북침전쟁연습의 총포성으로 올해의 막을 연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각종 명칭의 대규모북침전쟁연습들을 장란적으로 벌림으로써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전쟁의 불구름이 떠돌았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감행한 모든 침략전쟁연습소동들은 언제나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의 구실밑에 《방어적》이니, 《년례적》이니 하는 미명하에 벌어졌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화국이 여러 기회들에 수차 제기한 중대결단들과 평화의지에 북침전쟁의 총포성으로 대담한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무모한 망동은 누가 이 땅에서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누가 전쟁과 불신을 조장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앞에서는 그 무슨 《대화》니, 《협력》이니 하고 돌아앉아서는 동족대결과 전쟁열만 고취해온 남조선군부세력들이 아직

도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떠들며 저들의 북침전쟁광기를 합리화하려는것은 그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파렴치한 꾀변이 아닐수 없다.

은 한해의 날과 달을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보낸것도 성차지 않아 매년에도 그 도수를 높여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드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망동은 지금 은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격으로 분별없이 돌아대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반복대결소동은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위력과 막강한 군사적힘에 질질한 히스테리발작증에 불과하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케케묵은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떠들며 저들의 불순한 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하려 해도 그것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는 민족의 지향과 열망에 도전하여 북침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할수록 차례질것이란 수치스러운 파멸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김응철



탈당사태로 혼란에 빠진 남조선정국

남조선에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소속 《국회》의원 안철수가 탈당을 선언하였다.

문병호와 새정치민주연합소속의 전남도당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등 당의 여러명의 인사들이 그의 뒤를 이어 탈당을 선언하거나 탈당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야당은 충격에 휩싸이고 정

치권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정의당대표는 《이번 탈당은 혁신경쟁과정의 로선차이로 포장되고있지만 본질은 계파간 공천권다툼》이라고 이를 비난하였으며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은 《새누리당》은 분열과 갈등이 절대 없을것이라며 매년도에 있게 될 《총선》을 앞두고 《공천》문제로 치

본사기자

지나온 한해동안 남조선의 19대 《국회》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는 《불통, 불신, 불만국회》였다. 바로 이 한해동안에만도 《국회》를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정치적사건들과 추문들, 그속에서 민심의 기대밖으로 밀려난 정치인들의 혐오

스런 모습들, 정치후진국에서나 들을수 있는 남조선정치판의 《빠꺼덕》과 방범을 가리치 않았소란스럽게 해주었기때문이다.

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어졌다.

마지코보면 현 집권자가 지난 시기 야당소속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에는 《국회법개정안》에 두차례나 서명까지 하고서도 청와대에 들어앉은 지금에 와서는 시치미를 떼고 흑백을 전도하는 권모술수로 견제력들을 제거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

다. 정사일을 보는 최고립법기관이라는 《국회》가 독재권력에서 어찌지도 못하고 정식 통과된 법안도 고수하지 못한것은 남조선의 정치후진상을 보여주는것이였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현 집권자가 추진하는 《로동개혁 5개법안》, 《테로방지법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이 법안들이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재벌들의 배만 불리워주고 《테로방지》의 구실밑에 사회의 파쇼화를 더욱 촉진시키는것으로 하여 각계의 거세찬 반대를 받고있음에도 말이

다. 오죽했으면 이를 두

려하게 벌어지는 친박계(박근혜계)와 비박계의 싸움을 막아보겠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남조선의 각계는 안철수 탈당으로 야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이러한 상황으로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면서 우려를 금치 못해하고있다.

집권세력의 독주무대, 독재 권력의 거수기

남조선정치판의 주요 핵심이라고 일컫는 《국회》의원들속에서는 이해 따라 류달리 긴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정사를 론하고 법을 채택하는 최고의 립법기관의 한 성원이라고 코를 세웠지만 사실상 집권세력에게 손발이 쫄쫄 묶이워 하수인 노릇이나 해야 하는 처지에서 크게 벗어날수 없었던것이다.

대표적인 실례로 지난 5월 《국회》에 상정되였던 《국회법개정안》이 집권자의 전횡과 그의 둘러리노릇을 하는 《새누리당》에 의해 끝끝내 빛을 보지 못한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법개정안》으로 말하면 남조선의 고질적 악재인 독재 《정권》과 통치자의 전횡을 견제하

기 위해 1997년부터 끊임없이 론의되어오다가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정식 통과된것이다. 그런데 남조선집권자는 그것이 자기의 독재통치에 방해된다고 하여 《행정부의 권한 침해》니, 《3권분립》이니 뉘니 하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뿐만아니라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야 한다.》는 강도적요구를 내세우고 야당과 《국회법개정안》문제를 협의추진해온 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자》라는 감투를 씌워 사퇴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사이, 여당내 계파간에 치열한 싸움질로 정국이 일대 혼란과 마비상태에 빠져들었고 끝내는 여

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어졌다.

마지코보면 현 집권자가 지난 시기 야당소속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에는 《국회법개정안》에 두차례나 서명까지 하고서도 청와대에 들어앉은 지금에 와서는 시치미를 떼고 흑백을 전도하는 권모술수로 견제력들을 제거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

다. 정사일을 보는 최고립법기관이라는 《국회》가 독재권력에서 어찌지도 못하고 정식 통과된 법안도 고수하지 못한것은 남조선의 정치후진상을 보여주는것이였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현 집권자가 추진하는 《로동개혁 5개법안》, 《테로방지법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이 법안들이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재벌들의 배만 불리워주고 《테로방지》의 구실밑에 사회의 파쇼화를 더욱 촉진시키는것으로 하여 각계의 거세찬 반대를 받고있음에도 말이

다. 오죽했으면 이를 두

려하게 벌어지는 친박계(박근혜계)와 비박계의 싸움을 막아보겠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남조선의 각계는 안철수 탈당으로 야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이러한 상황으로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면서 우려를 금치 못해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치후진국의 비파꺼덕 소리

우주 개척의 길에서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2012년 12월 12일 천지를 진동하는 요란한 동음속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발사후 9분 27초만에 운반로켓 《은하-3》에서 벗어나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한 《광명성-3》호 2호기

에서 내보내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선물이 우주에 장중하게 울려 퍼졌다.

과 관리 등 고도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우주과학기술이 도달해야 할 목표는 대단히 어렵고 방대하다.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자기 힘으로 싸울린 나라는 별로 없다.

풍부한 자원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아직 우주를 정복하지 못한 나라들도 많으며 위성제작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발사체는 다른 나라의것에 의존하는 나라들

역시 수없이 많다.

하지만 공화국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하여 우주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었다. 어디에서 기술을 이전받은것도 없고 수입한것도 없다. 오직 과학자, 기술자들의 총명한 두뇌로 우주과학기술이 안고있는 모든 비밀을 밝혀냈으며 자체의 설비와 자체의 역량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설계로부터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금과 자기의 산업으로 실현된 100% 국산화된 것이다.

이것은 고도로 발전된 공

화국의 첨단기술과 종합적인 국력을 온 세상에 뚜렷이 과시해주고있다.

더우기 단 한시도 제재를 받지 않은적이 없고 단 한시도 위협을 받지 않은적이 없는 조선이 자기의 두뇌와 힘으로 《광명성-3》호 2호기를 우주에 진입시킨 사실이 세계에 준 충격은 대단히 큰것이였다. 제재도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전속에서, 그것도 계절적으로도 가장 엄혹한 강추위와 눈속에서 성공한 조선의 위성발사였던것이다.

공화국은 위성발사의 성공으로 위성과 운반수단을 100%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

편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것이다

우주발사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보편적 권리이며 당당한 주권행사이다. 우주조약에는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 위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미사일발사》니,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니, 《강력한 대응》이니 뭐니 실례발을 치며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불법》, 《비법》으로 몰아대었다. 지어 전과장을 조성하고 요격미싸일을 탑재한 군함들을 위성이 날아가는 방향을 따라 바다에 주권이 전개해놓으며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인류가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리기 시작할때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에서 9000여차례의 위성발사가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도발》로 매도되어 제재와 압력이 가해진것은 한번도 없다.

오죽하면 서방언론들까지 《같은 방식의 위성발사인데 북이 하면 미싸일발사로 되고 다른 나라가 하면 위성발사로 된다는것은 납득할수 없다.》,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가가 문제라는 식의 강도적론리》라고 하였겠는가.

공화국의 위성발사는 철두철미 자기의 우주리용과 발전계획에 따른 평화적목적을 띠고 있다.

하기에 공화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위협과 같은 제재

소동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있는 위성발사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였다.

그것은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며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선군조선의 억센 담력과 기상의 과시였다.

조선이 가는 정의의 길, 부강번영의 앞길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으며 조선은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는것을 3년전 12월의 그날에 공화국은 우주에 거세찬 불줄기를 새기며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오늘의 조선은 강대국에 짓밟히던 어제의 약소국이 아니다. 자위의 역제력이 있고 원자탄보다 더 강한 군민의 단합된 힘이 있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능히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올수 있는 행성의 위력한 강국이다.

그때로부터 지난 3년간 공화국에서는 우주개발사업이 국가적인 중대사업으로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어왔다.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성과적으로 계속 쏘아올릴수 있는 든든한 토대인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번듯하게 일떠섰고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울수 있는 인재력량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우주과학기술토론회도 계속 열리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다.

우주개발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이다.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것은 공화국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공화국의 위성은 앞으로도 자기가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우주에 치달은 조선의 국력

성공, 완전한 대성공이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이룩된 특기할 사변이였으며 선군조선의 종합적국력의 일대 과시로, 자주적인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당시 미국의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공화국이 위성을 발사한지 3시간만에 《조선의 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고 하면서 《광명성-3》호 2호기에 위성 목록고유번호 《39026》, 국제식별부호 《2012-072A》라는것까지 달아 그 존재를 공식 인정하였다.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도 우주궤도를 정확히 돌면서 밝은 빛을 뿌리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을 관측하고 촬영까지 하여 세상에 공개하였다.

이렇듯 공화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어깨를 겨룰수 있는 우주산업국으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과학기술위성의 성과적 발사!

이 사변이 안고있는 시대적인 폭과 무게는 실로 거대하다.

세상에는 재료공학이나 CNC기계제작, 프로그램기술과 같은 개별적인 기술공학분야의 발전을 놓고 자랑하는 나라가 많다. 그러나 우주산업은 그 모든 최첨단과학기술성공들이 집합되지 않고서는, 각이한 기술분야의 유능한 인재력량이 없이는 일떠세울수도 없고 운영할수도 없는 공업기술력의 최고절정이다.

때로 이 땅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곤 한다. -나라에서 베풀어 주는 고마운 시책과 사회혜택을 다 알고 있는가.

사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알고 받는 혜택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다.

국가가 실시하는 인민적시책들 가운데서도 전반적무상교육제, 전반적무상치료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 등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시책들이다. 이밖에도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

건설과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혜택들이 있다.

공화국에서 인민들은 이러한 사회적혜택들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있다.

2012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

여》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인재육성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다.

당시 수많은 나라의 출판물들은 조선에서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 CNC기술과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여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고 평하였다.

공화국에서 국가적, 사회적 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 역시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사회보험제에 의한 혜택중에는 노동자, 사무원들이 병 또는 부상, 가족의 병간호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근로소득동년한에 따라 해당하는 생활비를 주는 일시적보조금제도, 산전산후보조금제도 등이 있다.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답사 및 야영, 정휴양에 필요한 비용들도 국가사회보험 예산에서 지출되고있다.

오늘 공화국에는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명산들과 풍치

수려한 곳들에 근로자들을 위한 휴양소들이 설립되어 충분하고 즐거운 휴식을 보장해주고있다. 휴양생들은 등산, 유희오락, 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문화적이며 유쾌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에서 울린 폭음

로씨야인사의 클

어째서 조선인민이 자체의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였는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원자무기의 보호도 받음이 없이 1:1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과 맞서게 되였다. 적들은 자기 대통령들의 발언을 통해 숨김없이 그리고 빠졌이 조선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조선사람들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으며 자체의 핵무력을 창설하고 다지고있으며 앞으로 더욱 완성할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조약과 국제법에 기대를 걸었다가 고통을 당한 여러 나라들의 처지를 목격하고있기때문이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었더라면 미국이 감히 이라크를 공격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가다피 역시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있었더라면 서방이 감히 독격을 하지 못했을것이며 리비아를 무너뜨리지 못했을것이다. 유고슬라비아와 침략을 당한 임의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북의 핵기술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술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견해는 황당무계한 소리이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에서 핵무기를 만든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또한 우주로 돌파하였다.

남조선을 보기로 하자. 서방의 경제적 및 금융, 기술적방조의 견지에서 볼 때 남조선은 《최혜국》대우를 받고있다. 허나 오랜 기간 씨름질하였건만 자체의 위성을 쏘아올릴수가 없었다.

그러나 북조선은 자기 힘으로 위성제작 및 발사를 실현하였다. 그들의 제품은 마지막까지 사에 이르기까지 자체로 생산한것이다. 이것은 많은것을 립증해주는 사실이다.

물론 그들은 곤란을 겪고있다. 경제적봉쇄속에 있는것으로 하여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북조선의 컴퓨터화수준은 높다. 학교와 대학들이 컴퓨터로 장비되어있으며 훌륭한 전자도서관들이 있다.

서방이 허튼소리를 되풀이하고 아무리 외췌해도 조선의 기술수준은 압도적으로 앞선 발전도상나라들과 일련의 유럽나라들을 훨씬 통가하고있다.

그들이 겪고있는 곤란에 대해 말한다면 한번 봉쇄속에 처해보라. 그러면 곤란을 겪지

않겠는가. 같은 시기에 그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련계를 발전시키고있는데 사회주의적인 로선을 우선시하고있다.

상기하건대 그들은 자력갱생정책을 완전히 정당화하고있다. 핵시험과 자체의 핵무기개발, 위성기술의 덕택으로 조선은 오늘날 대내외정책에서 임의의 서방나라들보다 더욱 자주적이다. 지어 도이췌란드, 프랑스, 영국과 같은 대국들도 세계적범위에서의 제재를 탐내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활동에서 자주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북조선은 비할바없이 작은 나라이지만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고있다. 서방은 조선사람들이 자기 힘에 대한 확신과 높은 정신력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있는지 이해할수 없을것이다.

누구도 북조선을 종속시킬수도 북조선시킬수도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할것이다. 때문에 자체의 핵무기를 완성하며 군사적잠재력을 강화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으로의 노력은 환영할수밖에 없다.

구르드췌예브 라브렌찌 쾨스판찌노비치

모르고 받고 받고 혜택

얼마전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았다. 흰눈처럼 하얀 건물들과 깨끗이 포장한 구내길, 휴양소를 방불케 하는 공장의 모습...

우리와 만난 이곳 차성철기사는 《우리 공장은 원로투입으로부터 운반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통합생산지령실로 안내하였다.

공장의 《전방사령부》라고 불리우는 통합생산지령실에 들어서니 《최첨단을 돌파하자!》라고 써붙인 구호가 깊은 인상을 자아냈다.

이곳에서 차성철기사는 통합생산지령실에 공정관리, 공정분석, 동력관리, 품질관리, 생산조직, 생산일보, 무균무진, 품질관리, 영상감시체계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고 말해주었다.



자 기 의 것 이 제 일, 자 강 력 이 보 검

*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을 찾아서 *

공장에서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생산과정과 품질관리를 실시간 감시조종하고 수자화된 생산지령을 개별적생산공정들에 주어 말단설비들까지 수자화된 조종 및 조작체계가 훌륭히 맞물리도록 지휘하고 있었다.

특히 통합생산지령실에서는 지난 시기 제품의 량적 측면만을 조종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생산되는 제품의 질까지도 지휘조종하고 있었다. 공장에서는 한덕수평양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제작완성하였다는 이적로보트가 8개의 커다란 유유통을 한꺼번에 들어올려 척척 쌓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멋있었다.

공유유생산직장만이 아닌 콩신정, 영양사탕생산직장, 남새가루, 영양죽생산직장, 영양가루, 암가루생산직장, 애기젓가루생산직장을 비롯한 직장들에서도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갖가지 어린이식료품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국산화에 기초한 현대화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호젓한 풍경이 아닐

현대적으로 개진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생산된 갖가지 어린이영양식품들이 사람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종합남새암가루, 애기젓가루, 흰쌀젓가루, 영양암가루, 영양젓가루, 영양사탕, 코코아사탕 등 수십여종의 어린이영양식품들은 어린이들의 생리적특성과 성장시기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다.

특히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출생전부터 높일수 있도록 임신부들을 위한 영양식품들도 생산되고 있다. 태어난지 4개월, 5개월, 6개월, 13개월이 된 어린이들을 위한 애기젓가루, 천성적으로 소젓을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소젓알레르기용 애기젓가루들도 갖난애기가 있는 어머니들이 좋아하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데 기초하여

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공유유가 쏟아져 나오는 공유유생산직장에도 둘러보았다. 원로투입, 계량, 러과, 배합, 포장, 보관, 운반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자동화된 이곳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제작완성하였다는 이적로보트가 8개의 커다란 유유통을 한꺼번에 들어올려 척척 쌓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멋있었다.

공유유생산직장만이 아닌 콩신정, 영양사탕생산직장, 남새가루, 영양죽생산직장, 영양가루, 암가루생산직장, 애기젓가루생산직장을 비롯한 직장들에서도 생산공정의 자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갖가지 어린이식료품들이 생산되고 있었다.

국산화에 기초한 현대화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호젓한 풍경이 아닐

현대적으로 개진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생산된 갖가지 어린이영양식품들이 사람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종합남새암가루, 애기젓가루, 흰쌀젓가루, 영양암가루, 영양젓가루, 영양사탕, 코코아사탕 등 수십여종의 어린이영양식품들은 어린이들의 생리적특성과 성장시기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다.

특히 아이들의 영양상태를 출생전부터 높일수 있도록 임신부들을 위한 영양식품들도 생산되고 있다. 태어난지 4개월, 5개월, 6개월, 13개월이 된 어린이들을 위한 애기젓가루, 천성적으로 소젓을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소젓알레르기용 애기젓가루들도 갖난애기가 있는 어머니들이 좋아하고 있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데 기초하여



우리는 종합분석실도 찾았다. 이곳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과 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진성심 종합분석실장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분석기, 미생물신속검사기 등 비롯한 현대적인 분석설비들로 제품과 원료의 단백질,

지방질, 중금속이온, 미생물 등을 분석하는데 그 성과와 효율이 대단히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안팎으로 멋들어지게 꾸러지고 국산화에 기초한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화려한 일터에서 공유유를 비롯한 각종 어린이식료품들이 팡팡 생산되어 나오는 공장의 모습은

레오르드와 같은 생리활성물질이 첨가되어 식품의 영양학적 특성이 훨씬 개선되었다면서 새로 구축된 통합생산체계를 프로그램에 따라 제품의 영양성분들이 과학적으로 배합되고 가공되어 엄격한 품질검사체계를 거

수 없었다.

우리는 종합분석실도 찾았다. 이곳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과 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진성심 종합분석실장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분석기, 미생물신속검사기 등 비롯한 현대적인 분석설비들로 제품과 원료의 단백질,

지방질, 중금속이온, 미생물 등을 분석하는데 그 성과와 효율이 대단히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안팎으로 멋들어지게 꾸러지고 국산화에 기초한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화려한 일터에서 공유유를 비롯한 각종 어린이식료품들이 팡팡 생산되어 나오는 공장의 모습은

국산화에 기초한 현대화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것을 용변으로 실증해주고 있었다.

현대화된 공장을 돌아보며 자기의것, 자강력이 제일이라는 궁지와 확신을 깊이 새겨안으며 우리는 이들도 정다운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류현철

자꾸 앓았다. 그런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생산한 치료용애기젓가루와 영양젓가루를 써보았더니 아이의 영양상태가 현저히 개선되는것이 눈에 띄게 알리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화학첨가제를 전혀 쓰지 않고 천연물질을 원료로 한 이 공장의 어린이영양식품들은 지난 기간 여러 상품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상품포장과 상품도안에서도 특색있는 이 공장의 갖가지 어린이영양식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우리의 어린이영양식품이 제일이라고 저마다 말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는 공화국의 정책이 구현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오늘도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어린이 식품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어린이 식품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어린이 식품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어린이 식품들

얼마전 취재차로 옥류아동병원을 찾았던 우리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글썽한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안내하던 일꾼이 병원에 입원한 어린 환자들이 한창 수업을 받고 있는중이라고 말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솟아난 궁궐같은 옥류아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훌륭히 꾸려져있는 사실을 알고있던지라 우리는 그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싶은 《소학교실》간판이 나붙은 교실에 들어섰다.

산뜻한 칠판이며 교육용TV, 전자풍금, 소학교과정에 따르는 교과서, 참고서들이 그쯘히 구비된 아담한 교실에서 환자를 입은 꼬마들이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포랑포랑한 목소리로 교과서를 읽어가는가 하면 속셈을 해가며 수학문제풀이에 열중하기도 하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비로소 리해가 가는지 머리를 까딱이는 꼬마들...

누구나 돈 환푼 내지 않고 마음껏 배울 권리를 가지고있는 공화국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것은 너무도 흔히 볼수 있는 현

상이다. 하건만 단순히 그렇게만 대할수 없는 병원의 안의 학교풍경에 생각이 깊어졌다.

병원안의 학교. 세상에 나라도 많고 아이들도 많지만 공화국에 서처럼 입원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위해 병원에 교육시설을 꾸려주고 국가 부담으로 공부시켜주는

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이곳에서 아이들의 글썽한 소리가 랑랑히 울리고있는것이다.

이곳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별, 학년별, 교육과정안특성에 맞게 매 학생들에게 개별지도를 주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을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결을 떠진다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래사랑이 활짝 꽃피어나는 이 땅에서는 비록 일시적이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학생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학교가 세워지는 감동깊은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하여 세상에 돌도 없는 아이들의 병원인 옥류아동병원에 유치원교양실, 소학교실, 중학교실들이 꾸려지고 현대적인 교육

을 참관한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도 배움의 나라를 활짝 펼쳐가고 있는 학생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병원안에 학교가 있는것을 처음 보았다.》, 《가장 우월한 조건의 전반적무상치료제도와 전반적무료교육제도의 참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라며 경탄을 터

친것 아니라. 병원 안에 학교가 있다! 실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나라, 심산오지의 몇명의 학생들을 위해 분교를 세우고 섬마을 아이들을 위해 비행기가 날으며 학생이 학교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을 찾아가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생활력을 후대에게 새겨안게 하는 의미깊은 말이 아닐수 없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본사기자 홍범식



인기를

인기를

인기를

인기를

인기를

미래과학자거리의 한복판에는 창광상점이 새로 개점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건축면적이 7200여㎡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있는 창광상점에는 경질유리그릇, 수지그릇, 어린이용품, 놀이그릇, 전기용품, 문화용품, 운동용품

을 비롯한 갖가지 상품들이 가득 채워진 수십개의 매

장들이 있다. 천원장들마다에 국내산 상표가 붙은 제품들이 가득 쌓여있었다. 수백가지나 되는 상품들중에서도 경질유리그릇, 수지그릇, 가정용품들은 특별히 가정주부들의 인기를 끌었다. 새살

림을 시작한 자식들과 이 옷들에게도 나누어주겠다며 경질유리그릇들을 사들고 기뻐하는 대성구역에서 산다는 정혜영녀인이나 경질유리그릇을 써보니 다른 그릇은 쓰고싶지 않다는 중구역 동안동의 권혜란녀인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이 상점에 있는 수지그릇들을 모두 자기집 부엌에

차려놓고싶다는 한 녀인의 말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웃음을 피우며 이것저것 골라드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운동복들과 배구공, 통구공을 비롯한 체육기재들도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바드민톤채와 탁구채들은 전문가들속에서 호평이 자자하다고 한다. 수지쌀매를 비롯한 어린이 놀이감도 수요가 많았지만 가정이나 식당등에서 불고기용, 난방용, 불쏘시개용으로 리용할수 있는 솜은 자강도 랑림군에서 생산한것이라고 했다.

이 상점의 백영숙지배인은 모든 상품들이 우리 공장등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들이라고, 계단승강기와 수직승강기, 아동놀이터와 청량음료점의 놀이기구들과 식탁, 의자들도 다 국내산 제품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창광상점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발기에 의하여 1983년 11월에 창립되어 지난 수십년동안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왔다. 이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배려에 의하여 미래과학자거리의 한복판에 종전보다 2배나 더 크고 현대적으로 건설되어 국내에서 생산된 갖가지 생활

필수품들을 봉사하는 상업봉사가지로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광상점에 해마다 나와 제 품의 질에 대해 알아보시겠다는 은정깊은 약속도 해주셨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맵시있는 아이들의 수지쌀매와 발달량이 높으며 연소시간이 긴 솜을 비롯한 상점의 상품 하나하나에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이 짙 차있음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인민들의 기호에 맞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국내산 상품들을 보느라니 자력갱생의 힘으로 마중해가는 래일대에 대한 환희가 끝없이 물결쳐왔다. 이 모든것이 풍족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생산한 것이라면 이처럼 궁지높지 못할것이다. 창광상점의 상품들모두가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반공화국괴립압살책동을 물리치며 공화국인민들이 자체의 힘과 자체의 원료,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낸 자력갱생의 귀중한 창조물들이었다. 참으로 돌아볼수목 창광상점이야말로 자기의것은 자기들의 것이라 함은 딱 채워진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상업봉사가지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본사기자 고영숙

세계의 학계의 자랑 - 고려의학

세상을 둘러보면 자기 전통의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발전수준을 놓고 경험을 논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공화국에서처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의 귀중한 재부인 전통의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정하고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하기에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전통의학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토론회에 참가하여 공화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여러 나라 보건일꾼들의 반향은 대단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은 5 000여년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되

고 발전되어온 우수한 민족유산이다. 력사자료에 의하면 B.C. 3000년전에 벌써 우리 민족은 세계에 처음으로 돌침에 의한 침구술을 치료에 적용하였으며 찜질과 같은 간단한 치료법들과 인삼, 속과 같은 약초들을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게 법제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널리 적용하여왔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고려의학은 해방후 공화국에서 찬란한 개화를 맞이하였고 오늘 그 발전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유구한 력사와 전통은 토론회에 참가한 전통의학 전문가들과 현대의학전문

가들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한결 같이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는 조선의 고려의학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세계의학계의 으뜸으로 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전통의학이 매우 발달된 나라이다.

-날로 발전하는 현대의학에 비해 전통의학은 너무나 뒤떨어진 상태에 있는것이 일부 발전된 나라들의 현 실태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조선에 와서 우수한 전통의학 치료방법들을 배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기간 고려의학과학원과 어느 한 리인민병원을 돌아본 참가자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내놓았다.

-12살까지 언어장애로 말 못하던 처녀애가 고려치료를 받고 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을 보니 고려치료의 효과가 참 대단하다. 발전된 일부 나라들에서도 여러가지 전통의학치료수법과 수단들을 가지고 있지만 위장관계통질병과 신경계통질병치료에만

치우치고있으며 특히는 저런 마비성질병을 치료한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만 보아도 조선의 고려의학이 우수한 전통의학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러한 고려의료봉사가 모든 주민들에게 보장되고있으니 참으로 훌륭하다.

-전통의료봉사가 제인 보건체계내에서 현대의학과 적절히 배합되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니 정말 훌륭하다. 더우기 전문아동병원에서도 전통의학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 먼거리의료봉사체계까지 구축해놓고있으니 전통의학과 관련한 보건체계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조선의 보건체계는 정말 우월하다.

... 여러 나라 보건일꾼들이 러친 이와 같은 찬란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려의학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는 가장 우월한 전통의학이라는것을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워온 조선에는 수질이 좋은 샘물원이 대단히 많다.

룡악산샘물, 신덕샘물, 금강산샘물...

최근에는 평양에 위치하고있는 조국통일3대헌

장기념탑일대에서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새로 발굴되었다.

락랑샘물로 불리우는 이 샘물은 수질이 매우 좋아 여러가지 질병치료에 효과가 큰 장수샘물로 평

가되고있다.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과 환경위생연구소에서는 락랑샘물을 천연건강샘물로, 약샘물로 확정하였다.

영양물질이 몸안에 잘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하며 순환기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도 효과가 크다.

물 및 토양위생분석전문가들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락랑샘물은 만성장염, 만성간염, 취창

염, 치질, 당뇨병 등의 병치료에 특효가 있다.

약효가 뚜렷하며 건강보호능력이 높은것으로 하여 샘물은 사람들과서 인기가 대단하다.

본사기자

최고 품질의 천연건강샘물 락랑샘물

샘물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리움, 나트륨, 염소이온, 류산이온 등 건강에 유익한 30여가지의 광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화

《룡교만박》 (5)

글 한웅빈, 그림 김윤일

드디어 그 《래일 아침》이 왔다.

강 락쪽기슭에는 싸움준비를 갖춘 군사들이 서로 노려보며 서있었다. 창과 칼, 몽둥이를 든것이나 차림새에서나 아무런 차이도 없는 적아군이였다.

그러나 전혀 차이가 없는것은 아니였다. 동쪽기슭의 군사들이 공격태세였다면 서쪽기슭의 군사들은 방어태세였으며 동쪽기슭의 군사들은 평안내리던 일시에 때를 타고 또는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 태세로 옥옥대며 서있었다면 서쪽기슭의 군사들은 그들이 기슭에 발을 붙이기 전에 물속에 도로 밀어넣을 태세로 기세를 올리고있었던것이다.

이제 싸움만 붙으면 강물은 붉게 물들것이었었고 서쪽기슭도 역시 피에 젖을것이었다. 지금 용맹스레 서있는 군사들의 반수 이상은 강에 쓰러지거나 혹은 강물에 떠내려가버리게 될것이었다. 이것을 이들모두는 알고있으면서

도 누구나 다 용맹스런 모습으로 서있었다. 아직은 맑기만 한 강물은 두 적수들의 사이를 사뭇치며 흘러내리고있었다. 마치 자기 사나운 모양으로 두 적수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듯 류달리 세차게 소란스레 흘러가고있었다.

단군은 사흘간 지켜서 있던 바위우에 말을 타고 서있었다. 그의 뒤에는 백여명의 기마군사들이 가로 길게 렬지어 서있었다.

그런데 단군의 앞에는 강을 건널 때도 없었고 때비슷한것도 없었다. 서쪽기슭에서 보면 그가 강을 건너지 않고 평안내리려는것으로 생각될것이었다. 동쪽기슭의 군사들은 단군의 군사들도 도저히 풀길 없는 의혹속에 잠겨있었다. 그들은 단군과 백여명의 기마군사들이 강을 건는 다음에도 렬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이상한 렬을 받았던것이다.

《내 렬이 있기 전에는

누구도 움직이지 말라. 내 렬이 있기 전에 강에 뛰어 드는자는 장수건, 군사건들의 사이를 사뭇치며 흘러내리고있었다. 마치 자기 사나운 모양으로 두 적수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듯 류달리 세차게 소란스레 흘러가고있었다.

대왕은 도대체 강을 건너려는것인가? 배도 때도 없이 말을 타고 건너는다는것인가? 그러면 기슭에 올라서기도 전에 창과 칼들이 날아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기마수들을 전멸시킬터이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그러나 단군은 태연스레 말우에 앉아서 바위 밑에서 출렁거리는 강물만 내려다보고있었다. 강물은 이미 개대가리바위의 눈가에서 흘러내리고있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잠시후면 강물은 《개대가리》의 목언저리까지 내려갈것이었다.

단군은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아침해살이 서쪽대안을 불그스름하게 물들이고있었다.

단군은 채찍을 높이 쳐들고 웅글썰어도 우렁찬 목소리로 강 락안을 들었

다놓았다. 강물이 한껏 줄어든 시각이었던것이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며 박달족의 왕인 단군이다. 내 이 강을 건너 박달족이 하나로 되어 위력을 떨칠 성업을 이루어 하니 하늘과 땅, 물은 나를 도와 강에 다리를 놓아달라!》

단군의 체적이 강물을 힘껏 내리치었다. 체적이 맞은 강물이 벌떡 일어서려는듯 뽀얀 물보라를 일

에서 일어난것이 아니라 단군에게서 일어났다. 단군의 장검이 머리로 불그레한 금빛을 뿌리며 솟아올랐던것이다.

《기마군사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나가자!》 그의 말이 배허벅을 들이치자 말은 강물에 침범하여들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질풍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단군이 탄 말이 강물속으로 잠겨들 대신 물을 차며 강물우를 그대로 내달리는것이 아닌가. 말은 물우를 마치 땅우에서처럼 달리고있었다. 강물은 물보라를 뽀얗게 띄워놓았다. 그것은 아직 그 누구도 본적이 없는 너무

도 놀라운 광경이였다. 단군이 말을 타고 물우로 달리고있는것이다!

《기마수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나가자!》 그의 말이 배허벅을 들이치자 말은 강물에 침범하여들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질풍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기마수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나가자!》 그의 말이 배허벅을 들이치자 말은 강물에 침범하여들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질풍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기마수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나가자!》 그의 말이 배허벅을 들이치자 말은 강물에 침범하여들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질풍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기마수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나가자!》 그의 말이 배허벅을 들이치자 말은 강물에 침범하여들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질풍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기마수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나가자!》 그의 말이 배허벅을 들이치자 말은 강물에 침범하여들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질풍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기마수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나가자!》 그의 말이 배허벅을 들이치자 말은 강물에 침범하여들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질풍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기마수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나가자!》 그의 말이 배허벅을 들이치자 말은 강물에 침범하여들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질풍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기마수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나가자!》 그의 말이 배허벅을 들이치자 말은 강물에 침범하여들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질풍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기마수들은 모두 나를 따르라! 나가자!》 그의 말이 배허벅을 들이치자 말은 강물에 침범하여들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질풍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4돛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군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신 천출명장이시다

강의날자: 주체104(2015)년 12월 24일

강의시간: 1강의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8돛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숭고한 품모를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이시다

강의날자: 주체104(2015)년 12월 24일

강의시간: 1강의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가 없으면 사업에서 신심과 원기가 없어지고 건강도 나빠진다.

화를 내면서 생활하면 살결이 거무스름해지고 거칠어진다. 마음이 울적하면 증풍에 걸리기 쉽다.

성을 내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혈압이 오른다.

정서가 없는 사람은 정서있는 사람에 비하여 사망률이 훨씬 높다.

오랜 기간 신경긴장, 비관, 실망에 잠긴 사람들에게서 감기발생률이 정상사람들에 비해 3~5배 높다고 한다.

본사기자

옛날 한 지주가 돈을 모아서 벼슬을 사려고 작정하고있었다.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라고 지주는 두명의 머슴에게 이름을 달아 주었다. 한명의 머슴에게는 《고승》이라

는 이름을 달아주고 다른 머슴에게는 재산이 생긴다는 뜻에서 《발재》라는 이름을 달아 주었다.

정월초하루 아침에 지주는 새해에는 자기의 소원이 꼭 성취되라고 빌면서 《고승아》하고 큰소리로 머슴을 불

렀다. 그런데 고승은 다락방에서 거처하고있던 할 대신 이렇게 굽히 대답하였다. 《내려왔소이

지주는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금년에 너희 두놈이 우리 집 운수를 다 쫓아버렸으니 할수 없이 집에서 내 쫓아야겠다.》

고승과 발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좋수다. 당신이 우리 내보낸다면 한평생 재산을 모으고 출세할 생각을 하지 마시우다!》

《아!》 단군은 말에서 훌쩍 뛰여내려 무릎을 꿇고있는 사나이를 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극도의 놀라움과 경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서있는 그곳의 군사들과 그뒤에 서있는 백성들을 둘러보며 소리높이 선언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 시각부터 이 단군이 거느리는 박달족의 한식술임을 알리노라! 나는 그대들과 함께 우리 박달족이 하나로 되여 살아가는 더 큰 나라를 세워나갈것이다!》

강의 락쪽기슭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류혈의 참극을 예감하며 불안스레 사뭇초르던 강물도 안정을 얻은듯 조용히 흐느적하고있었다. 썰물시간이 지난것이였다. 얼마후면 밀물이 울려밀것이였다.

《아!》 단군은 말에서 훌쩍 뛰여내려 무릎을 꿇고있는 사나이를 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극도의 놀라움과 경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서있는 그곳의 군사들과 그뒤에 서있는 백성들을 둘러보며 소리높이 선언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 시각부터 이 단군이 거느리는 박달족의 한식술임을 알리노라! 나는 그대들과 함께 우리 박달족이 하나로 되여 살아가는 더 큰 나라를 세워나갈것이다!》

강의 락쪽기슭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류혈의 참극을 예감하며 불안스레 사뭇초르던 강물도 안정을 얻은듯 조용히 흐느적하고있었다. 썰물시간이 지난것이였다. 얼마후면 밀물이 울려밀것이였다.

《아!》 단군은 말에서 훌쩍 뛰여내려 무릎을 꿇고있는 사나이를 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극도의 놀라움과 경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서있는 그곳의 군사들과 그뒤에 서있는 백성들을 둘러보며 소리높이 선언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이 시각부터 이 단군이 거느리는 박달족의 한식술임을 알리노라! 나는 그대들과 함께 우리 박달족이 하나로 되여 살아가는 더 큰 나라를 세워나갈것이다!》

강의 락쪽기슭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류혈의 참극을 예감하며 불안스레 사뭇초르던 강물도 안정을 얻은듯 조용히 흐느적하고있었다. 썰물시간이 지난것이였다. 얼마후면 밀물이 울려밀것이였다.

